

(고요하나 소란스럽고 무심하나 치열한 숲의 생활자)

옆에서 본 저자 차윤정

인간의 삶 그 이상의 치열함으로 봄을 기다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 바로 숲이다. 여성 산림학자 차윤정의 《숲의 생활사》는 태동하는 이 봄, 숲의 생명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처음, 차윤정의 인상기를 써 달라는 청탁에 잠시 망설였다. 사실 동료학자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그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까닭이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럿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저서의 공동작업자이자 동료학자로서 그녀를 말하고 있으며, 한편 수년 전 빛나는 젊음과 열정으로 학문과 세상을 대하던 캠퍼스의 그녀를 떠올리고 있다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애정 어린 웃음을 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치열한 생명체이자 생활자인 숲의 생물들,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며 무심한 듯하나 전력을 다해 삶을 영위하는 그들처럼 그녀 또한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자이다. 이웃의 누구도 평소의 그녀와 산림 저술가 혹은 자연의 설교자 차윤정을 함께 떠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의 깊고 따뜻한 감성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누군가 그녀의 책을 읽고 “어머, 언니가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줄은 몰랐어요” 하는 담백한 감탄을 뱉을 때 우리 모두는 잠시 미소만을 지었을 뿐이나, 그 순간 그녀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평이 아니었을까 생각한 것이다.

자식을 낳아 기르며 갖게 되는 다양한 감정의 우물들이 있다. 사랑과 안타까움, 슬픔과 소망...그 모든 것을 모성애라 부른다면 그녀의 숲에 대한 지식과 애정 또한 그녀가 가진 모성애처럼 시간이 갈수록 거룩하게 발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화분에 물을 주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다독이는 모습은 영락없이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몇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녀는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시름하곤 했다. 그것은 마치 또 다른 출산과 같은 과정이었다. 글씨 남자인 나로서 잘못 이해한 걸까.

어떤 대상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쌓는 것은 무척 고단한 작업이다. 기나긴 여정 끝에 학문의 성취가 있더라도 단순히 그 지식과 정보만으로 상대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그것을 전한다는 건 더욱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수험용 생물 교과서에 머무를 수 있을 분야에 대해 생을 향한 정감어린 시선과 풍부한 고찰을 통해 지식을 넘어 가슴 뭉클한 감동과 여운까지 안겨 주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창기에 가졌던 다소 호전적인 성향이 포용적이고 여유로워지고 있음을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성향의 발전을 넘어 그녀가 숲의 인식을 사회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하나의 업적으로 챙기는 것은 지나친 찬사일까.

서글서글한 인상에 온 좋으면 미인의 칭호도 얻고 하는 그녀가 이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은 단지 남편이기에 갖는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으므로 그 결실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의 도리일 것이다.

무엇보다 대두되고 있는 지구환경과 생태에 관한 분야인 만큼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독수리 5형제까지는 될 수 없더라도 많은 독수리전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일깨운다면 더 없이 고마운 일일 게다. 끝으로 언제나 그곳에, 그때에서 있는 나무를 보는 일이 앞으로도 가장 쉽고 당연한 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삶의 기원 혹은 근원을 이룬 숲의 생명체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

전승훈 |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